

행복한 금요 편지

딸에게

김광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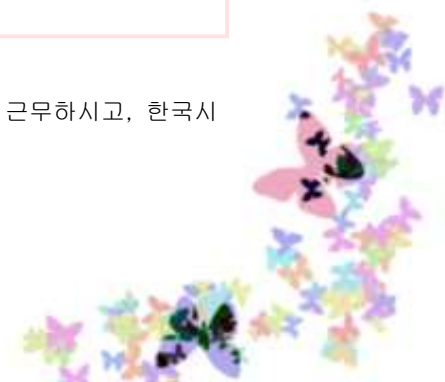
전 둔촌고등학교 교장¹⁾

지난 여름은 유난히도 더웠다. 기상관측 이래 108년 만의 더위라고 한다. 민족의 명절 추석도 지나고 결실의 계절이구나.

여름에는 부동산 계약하랴 잔금 맞추랴 전셋집 청소하고 이사하느라 그리고 아이 준혁이 유치원 신청하고 추첨에 얼마나 많은 신경이 쓰였느냐? 집을 팔고나자 집값이 너무 올라 새로 집을 장만하지 못한 채 집값은 자꾸 오르기만 하니 이러다 전세살이로 전전하는 게 아닌가하고 마음이 조마조마한 것 안다. 치솟는 집값이야 어쩔 수 없지만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으니 다행이다. 물질이야 더 있으면 좋지만 있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살이란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요 적다고 불행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이 행복이란다. 인생사는 '세옹지마(塞翁之馬)'다.

무엇보다도 건강이 첫째다. 우선 건강해야 일을 찾게 되고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며 산다. 자녀들이 건강하고 가족이 건강하면 한시름은 더는 것이다. 잘 산다고 다른 사람보다 특별나게 잘 먹고 많이 먹는 게 아니다. 요즘은 식생활에서 별 차이는 없다. 너무 잘 먹어서 탈이 날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남에게 폐 끼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은 일이다. 너희 남편들이 성실한 모습과 열심히 노력하며 사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단다.

1) 행복편지를 기고해 주신 김광룡 서울포럼운영위원장은 둔촌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시고, 한국시민자원봉사회에서도 활동하셨습니다.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도 즐겁구나. 해가 갈수록 커가면서 언어가 세련되고 의젓해지며 성숙되어 가는 모습에 자랑스럽기까지 하구나. 손주들 잘 키워라.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 공부, 하고자 하는 일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부모란다. 부모의 욕심에 아이를 망치는 일도 있단다. 자녀가 하고자한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즐기면서 공부하며 창의적으로 살게 도와주는 게 부모 역할이다. 나는 너희들을 그렇게 뒷받침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나 손주들만큼은 잘 자라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 꿈을 이루고 살길 바란다.

인생은 목표한 바가 있어야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도 필요하다. 꿈이 없는 사람은 목표 없이 떠도는 나룻배와 같다. 살아가는 목표와 꿈을 정하고 그 꿈을 차근차근 실현시키며 보람을 찾는 삶이 중요하다. 꿈은 너무 크지 않으면서도 보람을 찾을 수 있어야하고 생활을 즐기면서 목표를 향해 조금씩 전진하는 삶이 필요한단다.

앞으로의 시대는 인성이 아주 중요한 시대가 온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살아라. 그래야 모든 게 편안하고 조급한 마음도 없어진다. 사회가 변하면 변하는 대로 살아야지 않겠니? 요즘은 정보화시대에 IoT 사물인터넷, 바이오생명과학시대, 로봇시대 VR시대 등 앞으로 깜짝 놀랄 세상이 될 것 같구나. 그러나 물질 만능시대는 더해지고 생명과학으로 의술이 발달하여 인간생명 120세 시대가 되고 로봇시대가 온다 해도 인간의 걱정과 스트레스는 더 심해질 것이란 생각이다. 걱정과 스트레스는 생각하기에 따라 달라진다. 모든 일을 로봇이 다 해주고 아프면 질병의 근원을 찾아 줄기세포를 바꾸거나 치료해서, 생명이 150세까지 연장되어도 근심 걱정이 많다면 오히려 불행한 것이다. 아무리 돈이 많고 편리한 세상이 되어도 행복하지 않다면 힘든 세상이 틀림없을 것이다. 근심 걱정한다고 일이 잘되는 게 아니다.

오곡백과 무르익는 추수의 계절이다. 올해도 풍년이 되어 모두 기쁜 줄 알았는데 농부들은 쌀값이 너무 떨어져서 아우성이다. 한 쪽이 좋으면 다른 한 쪽은 안 좋게 되는 양과 음이 있듯이 세상은 이렇게 양면성이 있단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언제나 밝게 살며, 더불어 베풀고 도와주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세상을 즐기면서 살기 바란다. 아빠 세대는 한국전쟁 후 민생고에 시달리며 먹고사는 게 급선무였고 집장만하며 자녀 교육하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며 살았단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더 잘 해주지 못하고 과외공부도 학원도 못 다니며 스스로 공부하라고만 했던 것이 지금은 안타깝고 후회스럽기도 하단다. 그러나 너희들이 잘 자라주었고 결혼하고 자녀들 낳아 부모가 된 지금은 너희들을 아주 고맙게 생각한다.

이제는 너희들의 세대가 되었구나.

현대 사회는 모계사회로 돌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남편을 존중하며 살기 바란다. 남편을 존중해 주어야 직장에서도 사회생활에서 기를 펴고, 남자의 기가 살아야 일도 잘 할 수 있다. 남편이 잘 되는 집안은 그만한 현모양처가 있어서이고, 자식이 잘 되는 집안에는 엄마의 가정교육이 힘이 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의지할 곳은 하나님뿐이란다. 하나님 잘 믿으며 살기 바란다. 그래야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가 잘 되며 생활의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주일에 교회에서 보았고 영상통화로 보았건만 오늘도 손주들이 보고 싶다. 보고 또 보아도 보고 싶은 사람이 손주들이고 가족이구나. 오늘도 너희를 위해 기도하며 하루를 지낸다.

2016년 가을에
너를 사랑하는 아빠가

한선행복포럼에서는 '행복한 금요편지'이란 에세이를 통해 행복의 가치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당신의 소중한 편지를 기다리겠습니다. 행복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